

息山 李萬敷의 地行錄 研究

—그의 實心思想을 中心으로—

權 泰 乙

<目 次>	
I. 머리말	2) 寫實的 表現
II. 본 말	3) 理性的 批判
1. 實事求是的 事物觀	2. 理一而二妙의 事物觀
1) 實證的 考證	III. 맷는 말

I. 머리말

息山 李萬敷(1664~1732)는 性理學者요 文章家였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¹ 본 연구는, 「息山先生別集」卷 2·3·4에 수록된 地行錄(註·紀行錄) 11 錄과 附錄·總敘를 통해 息山의 實學에 근간이 된 實心思想²⁾의 각 작품에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이같은 사상은 문학적 효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역점을 둔다. 특히 기행문은 자연과의 직접적 만남이며 역사 현장에의 재학인에서 결과된 체험의 문학이란 점에서 작자의 對自然·對歷史·對社會 의식이 가장 강렬한 문학 중의 하나인 만큼 작자의 사상에 비추어 작품을 분석 평가해 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논의의 전의를 위해 본 지행록에 관한 아래의 몇 가지 점을 먼저 살펴고 본론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地行錄의 製作 年代

- 1) 息山의 行狀에서 佐漢은, “先生之於詩文 非意之也 蘭馨至潔 文彩自露 摄醜之士 無不宛然左避”(息山先生文集附錄上)라 한 바 있으며 그의 문학연구로는 최초로 拙稿에, “息山 李萬敷의 記研究”, 상주동연전문대학논문집 22집, 1983, “息山 李萬敷의 記研究(二)”, 上同 24집, 1984, “息山 李萬敷의 傳研究”, 영남이문학 11집 1984, “息山 李萬敷의 祭文考”, 상주동진대논문집 26집, 1985, “息山 李萬敷의 文學觀研究”, 호성여대, 국어국문학(제10집) 1987 등이 있다.
- 2) 필자는 “息山 李萬敷의 傳研究” p. 9~10에서 息山의 實學觀은 일용 인사이서 우주관상에 일관하는 實心의 實을 바탕으로 확립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息山은, 어려서는 부친(李沃·禮參)의 流配地를 따라 모심으로 遠遊할 수 있었고³⁾ 만년에는 더욱 산수를 좋아하여⁴⁾ 64세까지도 산수를 유람함⁵⁾으로國內는 거의 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 지행록 각 편은 여행 후 틈틈이 정리한 것 같으며⁷⁾ '遂作地行元錄附錄總敘 以資臥遊云爾'⁸⁾이라 한 것이 1730(영조 6)년⁹⁾임을 보아, 본 지행록의 최종 완성은 별세하기 3년 전인 67세(1730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둘째, 地行錄 内容 體裁

息山의 지행록은 別集 卷 2·3·4에 수록되었는데 地行元錄·地行附錄·總敘로 三大分하였고 元錄은 地行錄一 '四郡山水記'를 비롯하여 地行錄十一 '俗離山記' 등 총 11 錄으로 記文 24 題, 詩 173 首, 說 2 題, 錄(古事포함) 2 題 등으로 域內는 거의 편람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⁰⁾ 그리고 附錄은 註 9)에서와 같이 '少日經歷見聞' 한 8 道의 명승 고적을 三角山에서 白頭山까지 총 49 題로 略記하고 끝으로 地行錄 總敘를 두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조선 8 도의 전역에 걸친 명승 고적을 본 지행록만큼 집대성하여 놓은 國內 紀行錄으로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¹¹⁾

3) 李沃은 禮訟에서 老論側의 공격을 받아 定州→安陵→會寧→甲山→谷城 등지로 유배당함.

4) 息山先生別集卷 2, 地行錄一, 序에 “晚而益喜遊山澤”이라 함. 둘점을 이하는 ‘別集’이라고 약칭함.

5) 別集卷 4, 地行錄 十一, ‘秋蘇說’ 참조.

6) 註 10) 참조.

7) 別集卷三, 地行錄八, “丁未冬 滯東海上…(略)…轉遊雲興極山海之觀 收拾賦述錄諸篇 記文一 雜詩二十 息山老人書”

8) 別集卷四, ‘總敘’의 끝.

9) 上同, “六年秋病臥 自念衰耗摧射 不可復爲遠遊 略次少日經歷見聞 附地行錄後”라고 했으나 六年은 英祖 6년 1730년임.

10) 別集卷四, ‘總敘’의 序頭, “余少從先大夫 西出過王氏舊都 檀君箕子之墟 涉薩水 臨沸流 望太白之崗 隔浪水 觀遼野句麗渤海舊域…略…又東南移家 尋伽倻 入方丈 寧湖嶺之界 又東遊訪蓬萊 歷穢貌之地…略…訪先民禮樂遺化 新羅古都異跡 海岸望塗齒之島 於域內迨遍矣”

11) 崔康賢, 韓國紀行文學研究, 一志社, 1982, pp. 341~355에 역대 기행시문 472題를 수록했으나 거의가 특정지역·사건에 관한 기형 시문이다. 특히 석산의 지행록은 記·説·錄·說 등 200字×267面으로 약 53,400字에 달한다.

II. 본 말

본 항에서는, 地行錄 전반에 息山의 實學¹²⁾ 곧 實事求是¹³⁾의 實心思想이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여 크게 實事求是의 事物觀과 그의 理氣觀에 입각한 理一而二妙의 事物觀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實事求是의 事物觀

본 地行錄 中의 論은 記文이나 錄¹⁴⁾ 등에서 實證的이고 考證의이며 理智的客觀性을 발견할 수 있어 이를 實事求是의 實心思想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고 이런 차세에서 사물을 보는 작가 의식을 살펴기로 하였다.

1) 實證의 考證

息山은 明나라가 망한 이듬해인 1664(顯宗 5)년에 태어났다. 그는 이미 家學을 통해 實學思想을 傳受받고 있었으며¹⁵⁾ 明末에 이르러 清淡 일변도로 치닫던 儒學의 空論性을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일기 시작한 清의 考證學¹⁶⁾의

- 12) 抽稿, “息山 李萬敷의 傳 研究” p.72에서 실학의 개념을 ‘實事求是의 차세로 理論과 實踐, 修己(正·德本)와 治人(利用厚生·末)의 實을 모색하는 유실적 학문’이라 규정한 바 있다.
- 13) 李佑成, “實學研究 序說”, 實學研究入門 pp.12~15에서, 실학의 발전 단계 중 세 3기에 金正喜를 중심으로 한 實事求是學派, 즉 清朝考證學의 영향을 받은 일군의 실학파를 한정하고 있으나 필자는 實事求是를 ‘사실에 토대하여 진리를 탐구함’을 목적으로 한 정의적 실학태도로 본다.
- 14) 記文의 성격에 대해서는 抽稿, “息山 李萬敷의 記 研究” p.239에서 요약한 바 있거니와 본 저행록을 통해 記文과 錄文의 차이를 요약하면, 記文은 〈事象에 대한 작자의 意味賦與의 서사문〉임에 비해 錄文은 〈事件에 대한 작자 전문의 기록문〉이란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 15) 外曾祖父인 芝峰 李暉光의 실학은 그의 아들 李敏求를 통해 父 博泉 李沃에게 전해지고 다시 息山에게 전해졌음을 抽稿 “息山 李萬敷의 傳 研究” pp.72~73에서 밝힌 바 있음.
- 16) 林尹, 中國學術思想大綱,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70, p.226 再引。
昔劉石亂華(註, 남북조 분립시대 즉 經學分立시대)本於清淡之流禍, 人人知之。…略…未究其本, 而先辭其末。不習六藝之文, 不考百王之典, 不綜當代之務。舉夫子論學論政之大端一切不問, 而曰一貫, 曰無言。以明心見性之空言, 代修己治人之實學。股肱憮而萬事荒, 爪牙亡而四國亂; 神州蕪覆, 宗社丘墟…略…今之君子, 得不有媿乎其言。”

영향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같은 사상은 星湖의 實得之學,¹⁷⁾ 燕岩의 眞의 追求¹⁸⁾ 등에 앞서 息山도,

왜 實에 험쓰라 하는가? 요새 학자는 實에 험쓰지 않고 걸치레나 일삼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 마땅히 日用人事에서 그 이치를 구하고 그것을 실행해야지 만일 日用人事의 학에도 이르지 못하고 먼저 고상하고 원대한 일을 구한다면 끝내 실지로 얻은 바는 없을 것이다. 말에 忠信하고 행실에 篤敬하는 일, 들어선 孝하고 나가신 공손한 것 등의 일이 곧 實學이다. 실학에 익숙해진즉 實心이 점점 완비되지만, 실로 이 실학이 없다면 얻은 반들 어찌 오래 지닐 수 있으랴.¹⁹⁾

라 본 데서도 息山의 實心思想을 충분히 엿볼 수 있거니와 독자적인 견해로 易의 大象을 經世 治道의 자료로 해석한 데서도 實心思想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⁰⁾

이에 실증적 고증 태도가 두드러진 몇 예를 고찰키로 한다. 본 지행록에는 名稱에 대한 고증이나 寺刹의 견립 연대 고증 등이 많으며 우리 것에 대한 자부와 애호 정신을 피력한 대문이 많다.

중국 사신 鄭同이 이곳에 이르러 유람하였는데 한 頭目이 있어 맹세하여, 이 곳은 진짜 佛境이다. 원컨대, 죽어 조선인이 되어 오래 佛世界를 보련다 하고 드디어 물에 빠져 죽었다. 근년에도 어느 재상 李某가 이곳에 이르러 미끄러져 못에 빠졌는데 시종자와 여러 종이 구렸다고 한다.²¹⁾

이는 金剛山記 中 碧霞潭의 絶景을 古記(頭目的 얘기)²²⁾, 見聞으로 고증한 것이다. 時宰가 경치에 넋을 잃고 뭇에 빠졌다는 얘기는 碧霞潭 부근의

17) 星湖集卷 31, ‘夷李景祖’, 景仁文化社, 1974. “惟恐窮行之有愆 故相與講明斯是謂所學在我 践以行之 方是實得 實得之學 无待於外”

18) 燕岩集卷 3, ‘孔雀館文稿自序’, “爲文者 惟其眞而已矣”

19) 息山先生文集卷 11, ‘書贈柳廣仲’, p. 14. “何謂務實 今之學者 不務實 修飾外面者多 今宜就日用人事 求其理而體行之 若人事之學未至 先求高遠之事 終無所實得也 如言忠信行篤敬 入孝出弟等事 乃實學也 實學熟則實心漸完 苟無實心 所得何能久爲已有”

20) 李萬敷, 易大象便覽, 5. 三水三木 井之象을 풀어서 “臣謹按文王經始靈臺 庶民自來 以文王勞民之德 深入于民 故也 後之人君 奉民時費民力 以充其欲者 乃費之也 非勞之也 其不旋踵而身死國亡者 不亦宜乎”라 한 저의에도 實心의 완비를 겨냥하고 있다.

21) 別集卷三, 地行錄一, 金剛山記, “天使鄭同 遊至此 有一頭目 誓曰此眞佛境 願死作朝鮮人 長見佛世界 逢投水而死 近有時宰李某 到此 踏入潭 從人與諸僧 教之云”

22) 繼東文選卷 21, 南孝溫의 ‘遊金剛山記’를 가리킴.

絕勝함을 言外의 言으로 확신시키고 있다. 또한 ‘疎野洞記’에서도,

곧 이름을 속칭 矢약이라고도 하는데 내 생각에는 끌짜기 위에 鐵治(矢替이 뉘이는 곳)가 있어 矢(衰)는 矢(鐵)의 우리 음이며 弱(弱)이라 칭하는 것은 야(冶)의 諺론이리라.²³⁾

고 하여 音韻에 대한 인식이 남다름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이는 息山이 각 국어에 대한 음운지식이 박식했고²⁴⁾ 한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음을 알게 한다.²⁵⁾ 이같은 實證의이고 考證의인 태도는 ‘東都雜錄’의 序에서 이미 밝혔으니, <月城은 천년 고도라 遺事가 많으나 上代는 어리석고 절박하여 기록이 적고 후대의 기록은 황당무계하여 믿을 바가 못되어 뒷날 사람이 徵古할 자료를 모아 둔다>²⁶⁾고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雜錄은, 赫居世의 出身六部의 所在地, 國名의 異稱, 築城의 위치, 川流, 鶴述嶺, 曙星臺, 萬波息笛, 于軒과 玉寶庫 등의 作曲 등 20여 題材에 대한 史記(三國史記·三國遺事 등을 참고한 것 같으나 민간 전설을 염두하고 있다)의 기록과 민간 전설에 대하여 그 是非를 分辨하려고 애쓰고 있다. 한 예로,

경주부 성 남문 밖에 흙산(土阜) 수십여 개가 있는데 말하는 이가, 月城의 局勢가 나는 봉황의 형상이 되어 이에 봉의 암을 형상하여 地氣를 놀려 새지 못하게 하였다 한다. 이는 절히 그렇지 않다. 신라 王릉으로 가히 기록된 것은 다 평야에 있고 또 삼지어는 바다에 장사한 것도 있다. 瓊輿說(瓊수설)이 아직 우리나라에 미치지 아니했는지 어찌 地氣를 누르는 일이 있음을 알리오? 하물며, 소위 竹葉陵이란 것도 섞여 그 사이에 있으니 다른 흙산과 더불어 다름이 없다. 이는 신라의 여려 왕이나 왕비의 장지임에 틀림없다.²⁷⁾

23) 別集卷二, 地行錄三, 疏野洞記, “俗呼洞名衰弱 余思 洞上有鐵治 衰以鐵之諺音稱弱 又治之誤也”

24) 息山先生雜錄卷1, 伽盧創書, 倭書字母, 日本譯文, 韓靼歲月譯文, 諺文始原, 字韻考 등을 공부하였다.

25) 息山先生讀書日記(1721. 8. 15), p. 41에서 차녀 교육을 위해 부인도 小學 정도는 ‘婦人亦不可不讀書’라 하였고 子婦에게는 「閨訓」을 저술하여 한글로 번역해 주기도 하였다.

26) 別集四, 地行錄十, ‘東都雜錄’, “月城爲千年古都 多新羅遺事 然赫居世初爲六部君長 翠蒙雖盱 中世以後 好鬼佞佛 兼以戰爭不息 文獻無所徵 史家所錄多 謠俗相傳怪誕 幻妄 不可以詰焉 昔年客遊頗訪古跡 今自創城西歸 遂記所經歷一二 以俟博古者徵焉”

27) 別集卷四, 地行錄十, ‘東都雜錄’, “府城南門外 有土阜數十餘 說者謂月城局勢 爲飛鳳形 造此以象鳳卵 壓地氣不泄云 此殆不然 新羅王陵 可記者 俱在平野 又至有葬于海者 堪輿之說 未及行於東方 可知豈有壓地氣之事乎 說所謂竹葉陵 混在其間 與他土阜 無異 此其諸王王妃之葬決矣”

고 하여, 현 경주 皇南洞 古墳群²⁸⁾의 風水說²⁹⁾과는 무관한 것임을 實證的으로 考證하고 있다. 이런 기록 자체는 憽斷이나 推斷을 배제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려는 자체로 그의 實心思想의 발로라 할 만하다. 더구나, 이상의 예에서 본 것과 같이 息山은 어느 특정된 사실(주로 山水記에서는 佛敎의 인 說話에 대하여 비판이 많은 것은 이조 士大夫의 儒學觀과도 관련이 깊다)에 대한 비판, 고증이 아니라 그냥 넘기기 쉬운 市井의 일상사에도 관심을 보여 명쾌히 그 虛實을 分辨하고 오류를 실증적으로 교정하려 한 것은 나아가 바른 歷史意識의 정립을 위한 것이기도 하여 독자에게 주는 명석한 논리성·고증성은 息山의 작가적 태도에 개성적인 점을 높이기도 하였다.

2) 寫實的 表現

息山의 많은 지행록은 實相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는 사실적 표현 의욕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이런 의욕은, 대상을 통한 작가 자신의 재투영이란 점에서, “작자의 인생관과 관련된 보다 철학적 태도”³⁰⁾이기도 한 까닭에 息山만이 지녔던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근대 이래로 文學은 사실을 존중하게 되었다. 통경의 흐름 속에서 경서를 도색하고 초목 속에서 그 실상을 찾으려 한다. 吟咏하여 생겨난 詩想은 그 사상성이 심원해야 하고 자연을 교묘히 묘사하려면 대상에 밀착해야 한다. 교묘한 표현, 절실한 묘사는 마치 도장을 印肉을 누른 듯하여 彫琢을 가하지 않고서도 텔끝만한 것까지 극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어를 통해서 實相이 손에 잡힌 듯이 하며, 문자를 매개로 하여 계절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³¹⁾

고, 劉勰도 사실적 표현의 효과를 거론한 바 있다. 息山의 寫實的 表現은 단순한 文飾을 위한 修辭로서가 아니라 그의 實心思想에 기인된 것임은 앞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겠다.

옛 사람이 금강산을 기록한 자가 많으나, 그 산수를 꼭실하게, 그 형태를 보상

28) 東國大新羅文化研究所, 廣州地域文化遺蹟保存開發計劃, 1986, p. 238 참조. 13代味鄒王陵(一名 竹葉陵)을 비롯하여 이미 지정된 78基의 고분과 소재가 밝혀진 173基 등의 고분군.

29)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1984, pp. 46~48 참조. 한국의 風水사상은 삼국시대는 그 고증이 어렵고 신라말 道説(827~898 A.D.)을 시발로, 고려 시대에 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30) 이상섭, 문예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76,

31) 崔信浩역, 文心雕龍, 현암사, 1975, 卷十 物色四十六

한 것이 읽는 이로 하여금 기쁘게도·놀라게도·근심케도·즐겁게도 하여 神鬼의 변화나 險陽의 여닫힘으로 일만 이천 봉을 훌연 우리 옆으로 살이오게 한 것 같은 글은 식 산옹의 이 錄만한 것이 없으니 기이코 장할진지.³²⁾

이는 金剛山記의 跋文에서 息山의 아우 海臯子 李萬維의 평이다. 그러나 식산은 산수를 꼭실히 표현하고 형상을 그리듯한 것도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옛 사람이 말하길, 산을 잘 보는 사람은 반드시 물에서 보고 물을 잘 보는 사람은 반드시 산에서 본다 하였으나 산수는 오히려 사람의 뼈와 피같아서 江河의 흐름을 봄으로 천하에 가득한 아름다운 情(조물주의 의지)을 알 수 있다.³³⁾

하였거니와 〈天地 萬物에는 호흡이 있으니, 春秋·晝夜, 吐雲納霧·草木榮枯가 다 자연의 호흡〉³⁴⁾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곧 삼라만상을 有機體·生命體로 보므로 자연 꼭실한 표현, 적확한 摸狀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며 19세기 사실주의 작가들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란 명제를 증명하려 한 태도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표현하고 실상을 재현해 보이려 한 점은 息山의 實心思想이 빛은 태도이자 文을 위한 文³⁵⁾을 하기 위한 태도에서는 아니다.

특히, 息山이 金剛山 遊覽을 통해 名篇을 남기고 있는 것은 다른 분들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³⁶⁾ 息山은 60세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金剛山記’, ‘金剛山總記’, ‘又書金剛山記後’ 등의 散文과 49首의 詩를 남기고 있다. “文章詞彩는 응당 離騷·甘泉·羽獵·長楊 등 편파 어금비금하다”³⁷⁾고 李萬維도

32) 別集三, 地行錄六, ‘金剛山記跋’, “古人之爲金剛錄者多矣 然曲悉其流峙 摸狀其形態 使人讀之 可喜可愕 可憂可樂 神鬼變化 險陽闔闢 萬二千峰 忽若輸來於左右 無有如翁之此錄 奇乎壯哉”

33) 李萬敷, 志書六, ‘山川形勢’, “古人曰善觀山者 必於水 善觀水者 必於山 山水猶人之骨與血也 觀江河之流則天下扶輿之情 可知矣”

34) 李萬敷, 志書四, ‘天地萬物呼吸’, “天地有呼吸 春秋大呼吸也 畫夜小呼吸也 萬物同得天地之氣 以生息焉而既自形矣 故又各自爲呼吸 血氣之物外 大則山嶽川瀆吐雲納霧 小則一木一草 有榮有枯 莫非所以呼吸也 夫天地圍萬物而呼吸 萬物籍天地而呼吸 天地以呼吸爲消長 萬物以呼吸 爲之聚散 是故春秋晝夜之道大矣哉”

35) 息山先生續集卷二, 答李德和, “自古及今 不爲文而爲文者 其文自高 爲文而爲文者 其文益下”

36) 최강현, 한국기행문학연구, pp. 341~343 참조. 금강산 기행문이 다른 어떤 기행문보다 압도적이어서 80여 편이 됨을 볼 수 있다.

37) 金剛山記跋 참조.

평하였거니와 다른 金剛山 紀行文(주로 東文選 소재의)과 비교해도 실제 高下를 가리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특히 '金剛山總記'는 歷程을 따라 쓴 紀行錄이 아니라 金剛山이란 實體를 놓고 한 편의 記文를 작성해 놓았다.³⁸⁾ 본 기문은 구성이 起(地勢 및 位置) 叙(水·石·峰의 형상) 結(山水觀)로 되었는데 먼저 石·峰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묘사했는지를 살펴가로 한다.

선 놈, 기랜 놈, 세로된 놈, 가로된 놈, 둥근 놈, 모난 놈, 길쭉한 놈, 열굴을 맞대 선 놈, 우뚝 솟아 울죽불죽한 놈, 무더기로 된 놈, 풀어깎아지른 놈, 굽어보고 우러러는 듯한 놈, 누워 살피는 듯한 놈, 뛰어 활듯 솟구친 놈, 열대이 호소하는 듯한 놈, 일어나 다투는 듯한 놈, 춤추듯, 웃듯, 노하듯한 놈들이 둘의 事象이다.³⁹⁾

이 문장은 “事物 자체가 아니라 事物이 낳는 효과를 그리시오”⁴⁰⁾라고 총고한 Mallarmé의 말보다 일찌기 제작되었다. 活喻·擬人·直喻·直敘法의 다양한 구사나 문장 호흡의 長短에서 독자는 생동하는 실체의 몸짓, 마음짓까지를 보고 느낄 수 있다. 또한 山峰을 그리기를,

봉우리는, 앞선놈, 뒤선놈, 나아가는 놈, 물러서는 놈, 정직한 놈, 기웃뚱한 놈, 교묘한 놈, 중후한 놈, 그리고 앗은 놈, 우뚝 선 놈, 존엄한 놈, 빛나게 드러나 밝은 놈, 아름답고 유순한 놈, 순하고 아름다운 놈, 얌전코 아담한 놈, 가이 하며도 은화한 놈, 수양하여 사물에 오만한 놈, 뛰어 솟아 마치 가듯 하는 놈, 분신하여 마치 나는 것 같은 놈, 총총걸음으로 마치 가듯 하는 놈, 사납게 흘기며 마치 겁주듯 하는 놈, 고생에 마치 근심찬 듯한 놈, 강개하여 마치 탄식하듯 하는 놈들이 있다.……⁴¹⁾

38) 息山先生文集十七, ‘忠孝堂記’에서 식 산은 記文作成法이 할 수 있는, “古人所以名堂者於外有二於內有二如揭地號或標物可覩者皆外也寓於言以言其志述前訓以勉所不足皆內也”라 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였으니 ‘金剛山總記’는 外의인 일로 地號로 드러내거나 標物하여 습을 뜻을 완미케 한 기문이라 할 만하다
39) 別集三, ‘金剛山總記’, “其立者 傢者 縱者 橫者 圓者 方者 顯者 隱者 犀魄者 斷鶻者 俯仰者 臥顧者 跳踢聳若者 伏訴若者 起鬪若者 舞若笑若 怒若者 石之事云”

40) 金鍾云역, 리얼리즘, 서울대출판사, 1983, p.59. Mallarmé 가 Henri Cazalis에게 한 말.

41) 別集三, ‘金剛山總記’, “峰有前者 後者 進者 却者 正直者 歪側者 巧妙者 重厚者 踰躍者 立者 尊而嚴者 耿著而明者 倏垮而惠者 婉婉而美者 沟約而爛者 奇诡而自怡者 嬌厲而傲物者 躊躇若去者 奮迅若飛者 跂蹀若行者 狂顧若驥者 蹤產若憂者 忡慨若歎者……”

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친란합(粲), 단단합(鍊), 깨끗합(潔), 밝음(明), 무거움(重), 보배로움(寶), 벌임(陳), 일(戴), 참(佩), 세움(建), 새김(鑄鍛) 등의 형상은 直喻로 묘사하였고 일만 이천 봉의 鏽立한 峰勢는 역대의 故事 21가지를 引喻해 묘사하였다.⁴²⁾ 修辭의 기저를 이룬 活喻나 擬人法은 산 하나를 有機體로 본 그의 山水觀과 菩연의 관계에 있으며 直叙가 直喻로 교체됨에 문장 호흡의 변화는 물론 繪畫的 效果를 가미하였고 나아가 直喻와 引喻, 引喻와 設疑, 前後句의 抑揚反復은 千江이 大海로 모여 출렁이듯 文章 詞彩가 煥然粲然하여 “詞가 古雅한 데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音調가 밝고 밝아(灑亮) 마치 神會가 天出한 것 같음이 있다”⁴³⁾고 한 評이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이같이, 的確하고 寫實的인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그 대상에 몰입하게 하는 문학적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본다.

이에, 息山과 李穀, 南孝溫의 金剛山記 중의 같은 대문을 대비해 보기로 한다. 먼저 李穀은 세부적인 경관을 묘사하지는 않았고,

내가 본 이 산은 실로 들은 바 보다 나오니, 비록 畵師의 제주와 시인의 기교로 써도 도저히 이를 비슷하게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⁴⁴⁾

고 피상적 표현으로 그쳤고 南孝溫은,

임오일에 비가 개어 개설대에 올라 여러 봉을 바라보니 망고대와 더불어 대략 같고 조금 다를 뿐이다. 비로봉 중향성은 동쪽에 있고 선암 뒷봉은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니, 곧 비로봉의 서쪽 가지이다. 마하연 뒷봉은 바로 선암봉 앞에 있고 영랑현은 선암봉 뒤에 있고 서수정봉은 영랑현 서쪽에 있고…略…진전성봉은 또 안문봉의 남쪽에 있다. 망고대는 또 그 남쪽에 있고 삼왕봉은 망고대 위에 두각만 나타내고 천등·관음·지장·미륵·달마 여러 봉은 그 동남에 벌였는데 이는 그 대략이다.⁴⁵⁾

42) 예로, “천자가 4악을 순수할 때 끗 계왕이 王帛을 잡은 것 같다 할까?”(巡守四岳后執王帛乎), “공자의 행단에서 예의를 익히며 삼천 제자가 음양한다고나 할까?”(杏壇習禮三千子揖讓乎), “부처님 설법하면 설산에 꽃비가 내릴 때 향사 제불이 설법을 듣는 것 같다고나 할까?(雪雨雨花恒沙諸佛聽法乎) 등 21가지의 고사로 산봉우리의 형상을 묘사해 좋았다.

43) 別集卷一, 陋巷錄, ‘魯谷記’의 跋語에서 李玄逸은 “不惟詞致古雅 音調灑亮 有若神會天出者”라 평하고 있다.

44) 東文選卷七十一, 記, ‘東遊記’, “所見此山 實跡所聞 雖畫師之巧 詩人之能 不可得其形容之貌狀也”

45) 繼東文選卷 21, 錄, ‘遊金剛山記’ 남효온의 작.

라고 하였으며 息山은,

天逸臺는 그 높이가 불과 열 길이 뜻되는데도 대는 이미 우뚝이 높아 저흔자 배
이나 앞에는 일만 이천 봉을 다주하고 구불텅구불텅 멀리까지 이어졌는데, 높고
험하며 달리고 돌출한 것이 가히, 경이롭고 놀랍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공경스럽고
두려워 상쾌함이 胸肺를 적신다. 그 粉壁은 동북을 에워싸 하늘로 펴졌는데 들쑥
날쑥 짚아지른 위에는 뭇 작은 돌을 더해 자질구레하면서도 교묘히 사물을 형상한
것이 衆香城이다. 동쪽 위로 웅장한 언덕이 특히 빼어난 것이 있는데 엄숙하고 신
이하여 生色을 뽐내는 것이 비로봉이다. 동쪽 몇 발치에 양 가닥이 났는데 짹아
풀이 鞠족하게 나란히 선 것이 日出·月出峰이며, 남쪽으로 달려 빼어나게 솟고
端直하며 뜻이 심히 교만한 것이 穴望峰이요, 앞쪽에 버티어 두 나래를 펼쳐 날아
갈 듯한 것이 望高臺다.⁴⁶⁾

위 세 기행문을 비교해 보면, 李穀은 日程을 따라 쓴 기행록으로 遊賞事
에 치중하여 금강산 絶景은 筆舌로 다할 수 없다는 말로 대신하여 그 묘사
는 극히 퍼상적이며 南孝溫은 뭇 봉우리의 위치만 나열하여 독자에게 사실
적으로 그려내 주지는 못하였다. 이에 비해 息山은 눈앞에 펼쳐진 금강산
을 한 生體로 보아 活喻·擬人法의 구사와 文章呼吸의 장단 배치, 四方
上下로 視點을 이동하며 그 형상을 대비시킴으로 회화적 효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山水의 脈을 짚듯 그 특성을 적실하게 묘사해 놓았다. 이곡이나
남효원의 기행문이 일정을 쫓아 쓴 錄文으로 작자와 대상이 개별성을 느끼
게 하는데 반하여 식산의 기행문은 ‘네가 곧 山水格’인 物我一體感을 느끼
게 하였다고 보겠다.

‘龍遊洞記’에서도,

끌(洞)의 위 아래는 돌로 덮였는데 색깔은 희어 윤기가 나고 깨끗하여 침조차
뱉을 수 없다. 물은 돌을 안고 그 틈 사이로 깨어지며 흘러내려 종종종하는 음향
이 더욱 맑아 마치 거둔고나 坪竽를 연주하듯 한다. 바위 위에는 때에 돌화이 있었는데 큰 것은 마치 가마솥같고 작은 것은 둥이 같기도 하고 바리째 같기도 한데
전하는 말에는 용발톱의 혼적이라 한다. 그 옆에는 기이한 바위와 괴상한 나무,
이상한 풀이 많은데 날짐승이 나돌며 공중에서 우는 게 마치 사람을 놀리듯 혹은

46) 別集卷三, 地行錄六, ‘金剛山記’, “天逸臺 其高不啻十也 臺既嶠峻獨出 前對萬二
千峰 逶迤綿邈 嶸嶸騰突 可駁可愕可喜可愛可敬可畏 爽沁肺脾 其粉壁 捍東北而張天
削城鋒牙 上加衆小石 零零碎碎 巧妙象物者 衆香城也 東上有雄峙特拔 嚴肅神異
負生色者 瞇廬峰 東差有兩丫 戢削尖銳 拜位焉者 日出月出峰也 南翥 有秀巒端直 意甚
驕者 穴望峰也 前却有聳舉 翼翼然者 望高臺也”

머물기를 권하며 그 가는 것을 애석해 하는 것도 같다.⁴⁷⁾

흰 돌, 종종거리는 물, 용이 노니던 현장, 같이 노자고 보채는 산새, 용 유동의 清淨·幽靜한 분위기를 시작과 청각, 전설에 의한 상상력에 호소하여 적실하게 묘출해 놓았다. 紋景에서 빠지기 쉬운 과장이나, 정서의 충일을 억제한 가운데 物我一體의 情意를 천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息山 자신의 山水觀이 物役⁴⁸⁾에까지 이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음은 같은 실학자인 李灝의 清涼山記와 같은 대목을 대비해 보기로 한다.

내가 順興府에서 친구 田澤卿과 清涼山 유람을 약속하고 간단한 행장으로 떠난 것은 己丑年 11월 초하루였다. 석양녘에 안동 경계에 이르렀는데 青巖亭은 곧 沖齋權忠定公諱欽이 거처하던 곳이다. 도량을 당기고 득을 쌓아 물이 溶溶히 한 개 거북 모습의 바위를 들려싸고 있는데 바위 위에 정자를 세워 짐히 절묘하고 가히 즐기만 하였다. 이내 三溪를 지나니 곧 沖齋公이 살던 곳(芬苾)이었다.⁴⁹⁾

위의 문장은 이익의 記文이며 息山은

清涼洞門은 개울에 닿아 돌을 쌓아 臺를 만들어 伴鶴이라 하는데 늙은 솔이 덮고 있다. 앞은 푸른 절벽을 마주했고 물은 뜻 돌에 噴薄하니 은은한 우뢰가 골짜기에 찼다. 이미 골에 들어 난관을 헛디디며 심여 리를 가니 뛰빛과 산봉우리 기세가 삼연한데 다투어 나서며 서로 맞이하니 말에 몸을 맡긴 채 우러러 보는 사이 몸은 이미 침침한 푸른 가운데 든 줄도 깨닫지 못했다.⁵⁰⁾

고 서술하였다. 前者(이익의 것)는 紀行錄의 성격이 짚고 後者(식산의 것)는 記文의 성격이 짚다. 전자는 物(景觀)과 我가 並立된 데 비해 후자는 物我의 一體를 보이고 있다. 또한 祝融峰을 그린 대목에서도,

절 뒤의 최고봉은 紫秀峰·紫鸞峰인데 나란히 섰고 오른쪽에는 筆峰·硯滴峰이

47) 別集卷二, 地行錄三, ‘龍遊洞記’, “洞上下鋪石 色白滑潤 漢不容唾 水抱石得鱗 扱折注下淙淙 韶益清 若奏琴笙竽 巍上時有石坪 大如釜 小如盆 如鉢 俗傳龍瓜之痕 旁側多詭巖恆木異草 禽鳥出入 積氣中鳴 若傲人 或若勸畜 惜其去者”

48) 別集卷三, 地行錄六, ‘金剛山記’에서 “산수를 보는데 道가 있으니, 보는 것은 좋으나 사물에 勞役되어서는 안 된다.”(觀山水有道焉 觀之可也 不可役也)

49) 星湖先生集卷五十三, 記, ‘遊清涼山記’, 景仁文化社, 1974. “余自順興府與申友澤卿 約遊清涼 率爾裝出 己丑十一月初吉也 夕至安東界 青巖亭 故冲齋權忠定公諱欽 所居也 引渠築堤 水溶溶環繞乎一箇龜狀巖 巍上爲亭 甚妙絕可喜 仍過三溪 卽冲齋芬苾所也”

50) 別集卷二, 地行錄四, ‘清涼山記’, “清涼洞門臨溪 築石爲臺曰伴鶴 古松覆之 前對蒼壁 水噴薄衆石 隱雷滿峽 既入洞艱關 踏蹬十餘里 彩色峰勢森然 競出相迎 信馬仰睇 不覺身已在疊翠中矣”

있는데 대개 그 형상으로 이름한 것이다. 서쪽으로 한 가지가 蓮花·香爐 여러 봉을 짓고 향로봉 밖이 곧 丈人 등 여러 봉이다. 동쪽으로 한 가지가 第一峰으로 金塔峰까지 이르렀고 금탑봉 밖에 따로 한 줄기가 있어 두루 앞을 에워쌌는데 그 윗봉을 祝融峰이라 한다.⁵¹⁾

고 이익은 서술하였으며,

頭陀山西南이 清涼山이다. 太白 밑에서는 최고로 산이 많아 침침한 봉우리(疊巒)와 충충한 봉우리(層嶂)가 수백리, 清涼이 홀로 빼어나고 기이한데 우뚝이 솟(騰突)고 막아버리(撐拒)고 오아(聱牙)히 환(璇璫)하다. 그 북으로 빼어나 가장 존엄한 것이 紫鸞峰이며 西로 우뚝한 언덕이 琥滴峰이며 또 西로 험하게 솟은 것이 卓筆이며 또 조금 南에 가파르게 빽빽한 것이 僂鶴이며 또 조금 西로 이를 드러내 웃는 것이 蓮花峰이다. 紫鸞의 東南에 우뚝 솟아 대적코자 한 것이 紫霄이며 紫霄의 南쪽 바로에 웅장히 솟은 것이 擧日峰이며 경일봉 東은 香爐峰이요 향로봉 西南은 돌을 둑어 삼층의 시렁을 이룬 것이 金塔이며 또 紫霄로부터 東으로 비스듬히 뻗어 南으로 둘러 불록하고 평펴짐히 펴져 멀리 紫鸞과 서로 바라보는 것이 祝融峰이다.⁵²⁾

고 서술하여 前者は 寫景이 疏略한데 비해 後자는 詳密하다. 그러나, 曲悉하면서도 과장없고 산만한 데서 벗어났으며 八方의 遠近을 한 눈에 조망시킨 묘사력은 가히 특기할 만하여,

신생의 詩文은 세상에 쓰이기를 뜻한 것 아니나, 난초의 향기·옥의 깨끗함같이 文彩가 절로 드러나 文章을 한다는 선비가 완연히 자리를 양보치 않을 수 없다⁵³⁾

고 한 말이 칭찬만은 아닌상 싶으며,

천재적인 작가는……주체가 그의 마음 속에서 일으키지 않는 감정을 가장하지 않는다. 그는 느낀대로 말한다. 그러나 그의 감정은 생동하기 때문에 그의 문체는

51) 星湖先生全集卷五十三, ‘遊清涼山記’, “寺後最高峰曰紫秀與紫鸞並峙 右有筆峰硯滴峰 蓋以形名也 西一支爲蓮花香爐諸峰 香爐之外 即丈人諸峰是也 東一支由第一峰至金塔峰 金塔之外 別有一幹 周以擁前 其上峰曰祝融也”

52) 別集卷二, ‘清涼山記’, “太白以下最多山 疊巒層嶂 數百量 清涼獨秀異騰突 撐拒 騞牙璇璫 其北峻拔最尊嚴爲紫鸞 西而特峙爲硯滴 又西而萃起爲卓筆 又少南而崕崿爲僂鶴 又少西而斷鶴爲蓮花 紫鸞東南 竦嶽欲與敵爲紫霄 紫霄南卻攢峩爲擎日 擧日東爲香爐 香爐西南束石架累三層爲金塔 又自紫霄東迤南環隆結磅礴 遙與紫鸞相望爲祝融”

53) 息山先生附錄上, 行狀(李灝撰), “先生詩文 菲意之世 蘭馨王潔 文彩自露 瑪翰之士 無不宛然左避”

아름다운 것이다.⁵⁴⁾

고 한 말과 같이, 식산의 기문은 文을 위한 文이 아니라 식산의 實心思想에 바탕을 한 성실성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의욕에서 나온 만큼 潑漫한 音調와 번뜩이는 文彩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무게 있는 山水觀 나아가 人生觀·社會觀까지를 엿볼 수 있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理性的 批判

본 항에서는 息山의 對自然, 對社會에 대한 비판의식이 작품상에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독자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려 한다. 전술한 실증적 고증 태도가 이미 비판 정신 위의 작업이지만 여기서는 자연과 인世에서 보인 비판정신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息山은 傳統 繼承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니 ‘東都雜錄’에서만도 先王의 遺制를 보존해야 함⁵⁵⁾이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해야 함⁵⁶⁾은 물론于勤이나 王山岳, 玉寶高가 우리 나라 琴樂의 사조인데도 그의曲 하나 보존 못한 것을 통탄해 하고 있다.⁵⁷⁾ 나아가 자연물(國土)에 대한 애착이 없음을 비판하는가 하면⁵⁸⁾ ‘智異古事’에서는 惑世誣民하는 巫俗의 성행으로 日用千百金을 낭비하는 폐습을 방조하듯 月稅를 받는 爲政者의 모순된 행위를 산골에 무리를 이룬 山鷄를 통해 폭로 비판하기도 했다.⁵⁹⁾ 이보다 더욱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爲政의 실책을,

절 이름을 法住라 했으니 불교의 大法이 있는 곳임을 이름이다. 그후 성쇠를 겪

54) Peter Dixon, 姜大慶역, 수사법, 서울대 출판부, 1982, p.110.

55) 別集卷四, 地行錄十, ‘東都雜錄’, “府城內外閭落及田野 縱橫開道 俱直無所斜仄 俗稱爲井也 瓶窩令尹東京 狀請方伯 禁人犯畔割耕以保遺制 人多笑其迂 荷合先王之制 則存羊之意 豈不善也”

56) 上同, “今十二峰 略有其痕 鮑石苔觸埋沒 亭臺敗礎壞砌 或存或無 徒起後人之感 可歎也已”

57) 上同, “…略…玉寶高入智異山雲上院 學琴三十年 作三十曲奏之 傳之續命得…略… 克宗之後 傳羽調平調 共二百八十七曲 作鄉琵琶 宮調七賢調鳳凰調 共二百一十二曲 然則玉寶高 實我東琴樂之祖也 今三十曲不傳其一 豈不歎哉”

58) 別集四, 地行錄十一, ‘俗離山記’에서 文壯齋의 경관을 완성하며 불만한 산봉우리가 있음에도 “然僧陋 不能盡別名號 可歎也已”라 하여 그 이름조차 불이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있다.

59) 別集三, 地行錄七, ‘智異古事’, “每春秋 四方祈禳者雲集 巫母舉幢幡 跳梁呼號 日費千白 晉陽天嶺二官 定差直月稅 乾糗鎗銅器 以資用輸音 仍放之 山谷間 時有山鷄成群”

있고 임란 병화 후 다시 중건하였으나 자못 古制를 손상하였다 한다. 중은 홀이자 고 풀은 잡초가 무성하고 부엌은 불이 꺼졌는데 獸鳥의 발자국만 堂에 어지럽다. 이는 汚吏와 債帥의 침해를 감당치 못함이다. 아, 백성을 어루만질 牧民官이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즉 혜가 山人에게까지 미치니 향차 떨부 서민에 있어서서라 백성이 應政을 두려워하는 맹호보다 심타 한 말이 어찌 헛말일까보냐.⁶⁰⁾

고 비판함으로 佛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⁶¹⁾ 息山도 佛寺刹 역시 선민의 문화유산임을 망각한 牧民官의 무지를 비판하며 나아가 탐관오리와 빛쟁이(債帥)가 들킬거리는 현실을 좌시하고 있는 牧民官의 무책임성을 통해 對社會的·對國家的 병폐를 신랄히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구나, 寺刹을 사상적·이념적 차원을 초월하여 선민의 문화유산으로 본 점은 사상·철학·종교의 다기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 息山 자신의 進就의이고 理性的인 判斷에서 연유된 것이기도 하다.⁶²⁾ 息山의 理性的 批判精神을 '仙飛花說'에서 확인키로 한다. 順興 浮石寺의 섬돌 위에 난 仙飛花樹는 처마밑이라 雨露를 안 받고도 산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는 [禪家의 惑世誣民하는 일]이라 단정을 짓고, 氣質에 따라서는 불에 타지 않는 배, 나무 등이 있고 새가 둥지를 버리고 쥐와 함께 지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있듯이 선비화수도 처마밑 섬돌에서도 자랄 수 있음을,

(가) 그런즉 선비화수가 싫어하는 것은 雨露요 좋아하는 것은 그늘지고 전조한 것
인데 또 어찌 氣質의 변이가 아니겠는가? 대개 인정이 처음 보면 이상하게 여겨지나, 가령 국화가 없는 고을에 국화 한 포기를 심은즉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상하구나 이 풀은 임동에 서리가 내려 뜻꽃이 시드는데 어찌 홀로 피는고, 할 것이며 또 가령 매화가 없는 나라에 매화 한 그루를 심은즉 그 나라 사람들

60) ‘俗離山記’, “鋟名曰法住 謂篤教大法所存也 其後經輿廢 壬辰兵燹後復建 頗損古制云 釋子散去 庭茂草 腐冷灰 獸蹄鳥跡交於堂 蓋不堪污吏債帥 所侵漁也 噫 字牧者 非其人 則害及山人 況匹夫編戶之民乎 民之畏惡政 甚於猛虎 豈虛語哉”

61) 불교 교리에 대한 비판은 여러 군데서 발견되나 한 예를 브면, 李萬敷, 志書卷七, ‘儒釋之辨’에서 ‘靜’에 대한 개념을 動處에서 보면 判辨기가 어려우나 “譬則 釋氏之靜也 只似冷灰而已 儒者未發之中 則如火蘊於灰 發開則有用焉 此所以大不同也”라고 비유해 구별하기도 하였다.

62) 息山先生文集卷七, 答吳致重(제 4 서), “固之言曰諸子十家 其可觀者 九家而已 所謂九流是也 然固則以十家中小說家 致遠恐泥 故不取也 儒家亦在九流 似可疑矣 但固所列儒家甚難 亦宜在百家衆伎之偏也”(밑점은 필자가 침)란 말의 논조에서 百家衆伎의 우리에 儒家도 그 하나라고 보고 있음을 보아 佛教의 存立性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은 반드시, 이상하구나 이 나무는 큰 눈에 천지가 달치는데 어찌 홀로 꽃피우는가 할 것이다.

(나) 이제 우리 나타 사람이 선비화수를 보고 의심하는 것이 또 이와 무엇이 다르랴? 대개 의상대사가 구름같이 먼 지방을 지나다 마침 이 나무를 보고 가지고 와 심으니 후인이 죽어 말을 지었다. 심하구나, 불가의 과장하고 속인을 속임이. 여러 사람의 논의 한갓되지 않아 드디어 간략히 분별한다.⁶³⁾(가·나는 필자가 편의상 나눈것임)

(가)部分의 논리적 전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비판력으로 명쾌하다. 高遠한 사실에서가 아니라 日常事에서 求是하려는 實證的에도 적실하여 독자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나)部分 역시 理性人의 辨說답다. 雨露를 안 받고도 살 수 있다는 仙飛花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氣質의 특수성 때문에 의혹되고 그것을 악용한 佛家의 誣民的 설화를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佛家 쪽의 과장을 그대로 믿는 일반인을 향한 우회적 비판은 불편부당한 자세로 사물을 보려는 작자의 理性과 實心思想이 더욱 잘 반영되었다고 보겠다. 또한 (가)·(나)의 둔장만을 보더라도, 작자의 主義·主張이 위주가 된 논리적인 辨說이 되기 쉬운데도, 이 문장은 도리어 에세이적인 경향이 짙은 문예문임을 알 수 있다. 명석한 논리성이나 적실한 예증으로 論旨를 서술하는 가운데 例證을 통한 독자의 상상력을 확대시키고 있고 사물을 해석하는 작자의 성실한 태도는 知와 情에 동시에 강렬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理性的 批判을 요약하면, 작자의 誠實性·實心思想을 바탕으로 實事求是의 자세로 의혹을 막고 시비를 분별하려는 선각자—知性人—의衷情을 대할 수 있었다 하겠다.

2. 理一而二妙의 事物觀

息山은 退溪 사후 94년, 栗谷 사후 80년 뒤에 태어나 退栗의 사상이 主理·主氣의 극단으로 치달을 때 그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理氣論에 新解釋을 내려自家의 理氣論을 확립한 분이다. 그의 理氣觀은, 理氣는 體用一

63) 別集四, 地行錄十一, ‘仙飛花說’。“然則仙飛樹 所惡者 雨露 所好者 險燥 亦豈非氣之變者乎 大抵人情創見 則爲異 設有無菊之鄉 而栽菊一叢 則其人必曰異哉 是草嚴霜降 菊卉枯 何獨華乎 又設有無梅之國 而植梅一樹 則其人必曰異哉 是木大雪委天地閉 何獨榮乎 今我東人 見仙飛而疑之者 亦何以異此 盖義湘雲遊遠方 適見此樹 歸而植之 而後人從而爲之說 甚矣 釋氏誇誦誣俗也 諸人議論不一 遂略辨焉”

源⁶⁴⁾으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主氣·主氣, 理先·氣後로 볼 수 없으며 본체와 현상을 동시에 보려는 자세에 서 있다. 현상은 이치의 所當然임을,

옛부터 性(작자주, 天理가 사람에게 내려진 것)을 말하는 사람은 다 氣로써 말하고 일찌기 理로써 말하지는 않았다. 理로써 말하지 않는 사람은 理로써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바가 氣의 用(작용·현상)에 그치고 天理의 本體를 아는 데까지 미치지 못한 까닭이다.⁶⁵⁾

고 말하면서,

氣의 機微上에서 가히 本然의 妙를 찾을 수 있다.⁶⁶⁾

고 하여 理의 본체는 氣의 작용 즉 현상에서 인식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理의 所以然과 氣작용의 所當然, 본체와 현상은 별개의 것도 아니며 거기에 선후·경중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대저 理氣의 처음은 선후가 없다. 말하는 사람이 부득이 말한즉 조화하는 근본 입장에서는 理가 體가 되고 氣가 用이 되는 까닭에 먼저 理를 말하고 후에 氣를 말한다. 人物의 粿賦에서는 氣로써 이루고 理 또한 거기 부여되어 있는 까닭에 먼저 氣를 말하고 뒤에 理를 말할 뿐이다.⁶⁷⁾

고 하였다. 요약하면 만상의 현상은 理의 所以然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天理의 존재 확인은 氣作用에서만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기에 현상이 곧 이치요, 이치가 곧 현상으로 理氣는 體用一源인 것이다. 그의 理氣說을 요약하면

대저 만상의 生成之理는 하나 뿐이다. 오직(理가) 氣에 蓄貯(함께 싸여)되어 그 것과 더불어 動靜(즉 작용)함으로 性에는 本然之性이니 氣質之性이니 하는 나님이 있고, 마음(心)에는 道心이니 人心이니 하는 나님이 있으며, 情에는 四端이니 七情이니 하는 나님이 있다. 대개 나눌 수 없는 가운데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는 것이다. 나누어서는 안되는 가운데 나누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는 줄 알 헌후

64) 이 말은 程伊川이 '易傳序'에서 사용한 말로 理氣는 不相離한 것으로 "至微者理也 至顯者象也 體用一源 顯微無間"이라 한 데서 나온 말이다.

65) 李萬敷, 志書卷四, '理道', "自古言性者 皆以氣言 未嘗以理言 不以理言者 非以理爲不可言 其所見者 止於氣之用 不及知天理之本 故也"

66) 息先生續集卷一, 答李致和(別紙), "氣機上 可尋其本然之妙"

67) 息山先生文集卷五, 答元聖夫(別紙), "大抵理氣初 無先後 可言者 不得已而言 則 造化本原處 理爲體 氣爲用 故先言理 後言氣 人物稟賦處 氣以成而理亦賦 故先言氣 後言理"

에야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 되는 妙를 볼 수 있을 것이다.⁶⁸⁾

고 하였다. 息山의 理氣說은 필자 나름대로 파악한 바 있으나⁶⁹⁾ 그의 ‘理一而二之妙說’은, 단상의 근본 이치는 하나인데도 그 理致는 氣와 더불어 作用(變化·動靜)함으로 우리는 理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현상적 작용의 인식 주체는 사람이며 사람에게는 知覺作用이 있는데 이것이 天理와 形氣上 어느 쪽으로 드러나는가에 따라 하나의 理가 둘의 異目이 생길 수 있다고 하여, <忠·孝·悌·惻隱之心> 등은 天理上(道義上이요 純善의 마음)의 知覺이 드러난 것이요 주립에 음식, 갈증에 물, 추위에 옷, 고단함에 편안하고 싶은 마음 등은 形氣上(一身上으로 有善惡의 마음)의 知覺이 드러난 것⁷⁰⁾이라 예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는 곧 性·情·心에 공통된 논리가 성립되어 本體는 하나의 理인데도 그 理가 現象에서는 純善과 有善惡의 異目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며 이것 또한 現象과 本體를 동시에 보려고 한 息山 哲學의 요체라 할 수 있다. 前例한 ‘天地萬物 呼吸’說도 실상 息山의 理一而二之妙說에 기인된 山水觀이며, 石濤의 畵譜에서도

그림의 원리나 筆의 방법도 天地의 본질과 형식을 표현하는데 불과하다. 山川은 (일종의) 天地의 形勢이다. 山川의 氣象에는 비, 바람, 밝고, 어두움이 있고 山川의 大勢에는 맥맥하고 성글며 깊고 면 것이 있다. 山川의 氣象에는 이리저리 뿜어내고 둘이킴이 있으며 山川의 氣神에는 隱陽과 濃淡이 있다.⁷¹⁾

고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본질(본체)과 현상을 동시에 파악하려는 息山의 理氣觀은 山水를 하나의 生體로 보고 있는데, 地行錄中 詩에서 “몸과 마음 그윽코 비었으니 문득 귀신과 더불어 한 가지 일세”(身心幽且虛 却與鬼神同; 靈源洞尾聯), “정녕 조화옹은 내게 베풀이 어긋남 없네”(丁寧造化翁 餉吾不離離; 滯雨尾聯), “特地에 위태히 섰음도 끝내 조화의 힘을 뼙일세”(特地危

68) 息山先生文集卷七, 答吳致重, “大抵理一而已 惟蓄貯於氣 而與之動靜 故性有本然 氣質之分焉 心有道心人心之分焉 情有四端七情之分焉 蓋有不可不分於不得分之中者也 不得分之中 知有不可不分 然後二而一 一而二之妙 可見”

69) 抽稿, 息山李萬敷의 記研究, pp. 232~33, 息山 李萬敷의 記研究(II), pp. 165~167, 息山 李萬敷의 傳研究, pp. 74~77 등.

70) 息山先生文集卷 12, 露陰山房錄, “如於君欲忠 於親欲孝 於長欲弟 於孺子入井 有惻隱之類 即天理上知覺也 如飢思食 渴思飲 寒思衣 勞思安之類 即形氣上知覺也 其知覺同 而所以知覺不同也”

71) 朱若極, 孫貞淑역, 石濤 〈畵譜〉(下), 「中國語文學」, 영남중어중문화회, 1981, p. 171.

自扶 終藉造化力；白川洞尾聯), “주고 받길 계을리 않으니 조화의 힘을 어찌 측량키 어려우라”(酬應不暇賴 造化何難測；遊盤龜其二尾聯) 등과 같다. 造化翁의 能力 즉 理(본체)를 山水 즉 氣(현상)에서 발견하고 있는데,

비단 수풀 수놓은 바위는 항창 가을인데
가마를 재축않고 자리보아 쉬네
온 끌짜 하늘 기미는 울어 끝날 줄 모르는데
道야 어찌 반드시 형상에서만 찾으랴.⁷²⁾

는 ‘鳴淵’이란 시는

물이 합치는 곳에서 巖磴(바위다리)을 지나 나무다리로 이은 또 약 수십 보를 가면 山脚(산밑자락)은 長安을 둘러 막았고 큰 들 예닐곱이 폭염피업 계곡 둑에 놓였고 또 누은 들은 산록이 되어 입술을 물가에 담갔는데 물이 곳곳으로부터 낭낭히 흘러흘러 모이고 거스르고 소용돌이치고 용기는 푸른 물을 鳴淵이라고 이름하였다. 앞은 작은 산봉우리와 마주했는데 마치 멀 편 연꽃이 못 가운데 잡긴 것 같다.⁷³⁾

水石이 어울려 그칠 줄 모르고 우는 뜻을 보고 息山은 문득 만상에 이치 있음을 꼭히 현상을 통해서만 보라고 자신의 철학을 詩로 응축해 놓았다. 山川을 통해 만상의 生成之理를 확인하고 있는 시인의 경건한 모습에서 <主觀的 경험단이 유일한 客觀的 경험>⁷⁴⁾임을 궁정하게 된다. 사실적 표현에서 도 언급했듯이 산천을 한 생물체로 인지하고 物我의 一體境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은 神妙한 勝景이 寓圍한 理의 本體를 확인하고 있음에서이다. 理는 一로서 金剛山 一萬二千峰을 지었고 골골이 沼澤을 두었다. “엎디어 호소하듯, 일어다 다투듯, 춤추듯, 웃듯, 노한 듯”한 바위의 형상이나 “조그려 앉은 놈, 유순한 놈, 암전한 놈, 총총걸음으로 가는 듯한 놈”의 산봉우리는 바로 理一而二妙의 현상이요 바로 본체인 것이다. 그러기에 息山은 風水說의 虛實을 묻는 말에 대답하여,

그 理致가 알 수 있는 것으로부터 말하면 實하여 有用하고 알 수 없는 것으로부

72) 別集卷三, 地行錄六, ‘金剛山記’, “綺林繡石正裝秋 不迫肩輿著處休 滿壑天機鳴未了 道要何足有形求”

73) 上同, “自合水處 通巖磴 補以木棧 又約數十步 山腳回遮長安 大石六七離立鷄畔 又臥石爲麓 磬挿入水際 水從處處 琅琅下下 潘潤滋凝 碧名曰鳴淵 前對小峰 如未開芙蓉 影倒潭中”

74) Damian Grant, 金鍾云역, 리얼리즘, 서울대출판부, 1982, p. 64.

더 말한즉 虛하여 밝히기 어렵다. 가히 알 수 있다는 것은 象을 취함일 뿐이니, 山水의 去來나 向背와 성글고 빼빼하고 정밀하고 거친 것 등이 象 아닌 것이 없다. 理致는 象에 붙어 있는 까닭에 象으로써 그 氣의 모이고 흩어지고 두텁고 얕은 것을 占치려 하는 것은 이것인즉 또한 소홀히 할 일은 아니다. 術家の 禍福·神恵한 말에 대해서는 끝내 근거할 바가 없고 사람으로 하여금 私欲을 조장하고 天理를 어기는 일이라 의당히 일체 축출하는 게 옳다.⁷⁵⁾

고 하였으니, 그 象에는 그만한 理致가 거기 寓寄하고 있음으로 氣象을 취함이 天理를 취함일 뿐 古凶禍福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곧 絶景엔 絶妙한 理致가 거기 함께 하여 名山과 惡山에서 유람자가 보는 기분이 달라짐은 현재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風水觀은 곧 譏緯說로서가 아니라 그의 理一而二妙說에서 성립된 것으로 實思想에 기반을 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現象이 곧 本體요 本體가 곧 現象이기에 息山은 金剛山總記를,

취함이 아무리 많더라도 죽히 다할 수 없으니 그 취함을 내 몸에서 하는 것만은 못하다. 그 安重한 것을 취하여 仁을 삼고 그 流通함을 취하여 智를 삼으며 그 峻截(위엄있고 정중함)함과 明爽함을 취하여 義를 삼으며 委曲(찬찬하고 자상함)과 彰徹(밝고 투철함)함을 취하여 禮를 삼고 그 높고도 태연함을 취하여 德의 두터움을 삼으며 그 있지 아니함이 없는 것을 취하여 道의 갖춤을 삼으며 그 煥然하고 繁然함을 취하여 文章을 삼아야 이에 산을 볼 줄 안다 하겠다.⁷⁶⁾

고 마무리하였다. 이는 곧 山川의 氣象 속에 그 기상을 지은 理가 있고 또한 그 이치는 자연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에도 共有된 것이기에 外的인 것(자연경관)에서만 구할 게 아니라 内的인 것(나 자신)과의 合一을 이를 때 만 山水觀의 理과는 實을 거두게 된다. 이는 곧 天道有敬說을 創出⁷⁷⁾하여

75) 息山先生文集卷十二, 記鴻亭講目, “(申元伯)又問堪輿之說如何 (息山)曰其理從可知者而言 則實而有用 從不可知者而言 則虛而難明 所謂可知者 取象是已 如山水之去來向背 跡密精粗 無非象也 理寓於象 故欲於象而占其氣之聚散厚薄 是則亦有不可忽者 當至術家禍福神恵之說 終無所可據 只令人長私欲而滅天理 宜一切黜之可也”

76) 金剛總記, “取之雖博 不足以盡 不如取之吾身 取其安而重以爲仁 取其流而通以爲智 取其峻截而明爽以爲義 取其委曲而彰徹爲禮 取其尊而泰以爲德之厚 取其無所不有以爲道之備 取其煥然粲然以爲文章 於是得所以觀山者”

77) ‘天道有敬說’은 한국 유학사에서 息山이 최초로 立論한 우주관으로, 退溪의 嫡統을 차지하던 葛菴 李玄逸과의 토론 끝에 그를 승복시킨 이론이기도 하다. 天道에 誠만 있다고 본(中庸章句에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란 말에서 유래) 종전의 이론에 息山은 天道에도 스스로 整齊하고 스스로 嚴肅하며 스스로 惺惺하며

天人에 일관하는 理는 하나 뿐임을 주장했던 息山의 哲學에 기인한 山水觀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사람이 늙으면 氣가 쇠하여 글(문장) 역시 쇠한다”고⁷⁸⁾ 보는 게 상례지만 息山의 경우는 임종 직전에도 詩를 남길 만큼 정신력이 특출⁷⁹⁾한 게 아닌가 싶다. 天人合의 경지에 이르고자 평생을 修德한 息山의 문장은 그의 實心思想으로 바탕을 이루어 독자로 하여금 誠實性에 감동케 하며 說理의 면서도 敎訓 일면도에서 벗어나 物我를 동시에 보여줌으로 하여,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事象에 짐재해 있는 훌륭한 것을, 빛을, 희망을 작품 가운데 나타냄으로써 존재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재주가 아닐까.

라고 한 今道友信의 말⁸⁰⁾을 더욱 실감케도 하였다. 문장을 통해 독자에게 상상력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은 문학의 효용 중 제 1위적 요소이기도 하다.

理一而二妙說의 事物觀을 요약하면, 하나인 生成의 理致가 만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천차만별이다. 隱微한 本體(理)를 顯著한 氣質에서 발견하고 확인하고 있는 息山의 기행문은 說理의 논리성을 지니면서도 전달 위주의 설명성을 벗어났다.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을 동시에 보려는 誠實性과 所以然(理致)과 所當然(現象)을 동시에 확인하고 상상케 함으로써 地行錄이 단순한 破闊의 자료를 삼거나, 사실의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경험치 못한 자연에 대해 再吟味·再解釋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 특징이 있다 하겠다.

스스로 收斂하는 敬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儒者의 최고 경지가 스스로 誠實한 것은 天道이기에 天道에合一코자 誠實히 하려고 인간은 노력하듯이 스스로 恭敬한 것이 天道이기에 天道에合一코자 敬天하는 것이 사람이란 논리다(息山先生文集卷五, ‘答喚惺齋權丈甲萬’ 1.2.3.4書, 文集卷十二, ‘記錦水講問’ 丁範朝撰墓碣 참조)

78) 朱子語類大全卷百三十九, 作文, 嶺營藏板, “人老氣衰 文亦衰”라 하고 구양수·소동파의 글을 예로 들고 있다.

79) 廬啓元撰, 家狀, 1732년 음 12월 18일 아침에 영면하며 17일 밤에 자신의 뜻을 (此月帶來守我窓 有時清影廢油缸 若逢月往諸公案 知我心如此月光)

이 달은 늘 와서 나의 창을 지키어/때로 맑은 그늘에 기름등잔 끼었네/ 만약에 달을 만나 제공의 책상에 오거든/내 마음이 달빛 같음을 아소서

80) 今道友信, 白琪洙역, 美論, 정음사, 1977, p. 174.

III. 맷 는 말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息山의 地行錄은 息山先生別集 卷 2·3·4에 수록되었는데 地行元錄(11錄, 이중에 記·說·錄·詩 등을 포함)과 附錄(49題), 總敘로 三分되었으며 전편의 事物觀은 實心思想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둘째, 實事求是的 事物觀에서는 實證的 考證을 통해 實學(形·정조간의 실학)의 선구자적 입장으로 對社會·對歷史 觀에서 個性的 作家意識을 발견케 하였으며, 寫實的 表現을 통해 自然物을 한 生體로 볼으로 生命力의 内在를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文體上의 유효적절한 修辭는 繪畫的 效果를 거두었고 長短·抑揚·對句·漸層 등의 각양한 구사로 문장에 音樂的 效果를 나타내었다. 또한 理性的 批判은 가장 소홀히 할 日常의 일에 눈을 돌리므로 독자에게 소재의 다양성 제시는 물론 친근미를 느끼게 하였고 성실성과 지성을 가지고 명료하게 사물을 비판함으로 독자의 사물관을 확대시켰다.

세째, 理一而二妙說에 입각한 事物觀은 息山의 性理哲學(우주론·인생론)이 바탕된 自然觀의 일단으로, 自然是 生命力を 지닌 有機體이기에 現象이 곧 理致요 理致가 곧 現象임을 묘사해 냄으로서 기행문으로서는 개성적인 글이며 나아가 독자로 하여금 自然에 대한 解釋·吟味에 深度를 더했다.

네째, 本 地行錄은 국내기행문으로서는 가장 광범위한 명승고적을 다루고 있는 것 같으며, 국토에 대한 애정이 담긴 기행록이라 할 만하다. 특히 金剛山記文은 역대의 어느 文人의 기행문보다 내용상에서나 형식상에서 우수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섯째, 息山의 地行錄은 說理的 기행문으로 기행문이 지향하는 미경험 세계의 현실화를 통해 破闊의 자료 제공이란 점 이상의 인간 존재성까지를 확대 인식케 하였다.